

## ‘스벅 탱크데이’에 분노... “이젠 안가” 번지는 ‘탈벅’

역사 인식 부재·감수성 부족...광주 넘어 전국적 공분  
‘탈 스타벅스’ 인증·텀블러 폐기·선불카드 환불 속출  
정용진 ‘멸공’ 재소환...신세계 계열사 불매 목소리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한 스타벅스 이제는 안 갑니다.”

“말도 안되는 텀블러 프로모션에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분노가 치미네요. 아무리 장사속이더라도 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를 그런 식으로 희화하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광주·전남지역민들의 분노를 넘어 전국적인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2·8·9·10·19면

단순 해프닝 수준을 넘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건드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탈벅’(스타벅스 거부) 신조어 등장과 함께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Tank Day)와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표현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확산되며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비판 여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광주에서는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역사적 상처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반응을 잇따라 올리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 시민들은 “5월만 되면 반복되는 왜곡과 폄훼에 지친다”며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기업 대응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역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단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동체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때문에 기업의 광고·마케팅 문구나 콘텐츠가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거나 희화화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반응도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논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전두환과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데이’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하는 텀블러 프로모션을 실시해 지역 정치·교육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20일 광주 북구 한 스타벅스 매장 주차장이 텀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는 ‘불매운동’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스타벅스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폐기하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며 제품 사용 중단 의사를 드러냈고,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방법이나 로고 제거 방법 등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 이용을 끊겠다는 의미의 신조어인 ‘탈(脫)스타벅스’, 이른바 ‘탈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 온라인 이슈를 넘어 소비자 감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세계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불매 움직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모회사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멸공’ 관련 발언까지 온라인상에서 다

락한 뒤 5%대 하락 마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일회성 약재를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충성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 당일 순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했으며, 미국 시애틀 소재 스타벅스 본사도 사태 수습에 나서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가볍게 소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 관계자는 “5·18은 지역민들에게 현재진행형의 역사”라며 “기업이 단순 마케팅 실수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이 소비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어떤 역사 인식과 사회적 메시지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사회적 정서와 가치에 대한 감수성이 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초민감 소비 시대”라고 말했다.

유통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 ‘광주 광산울’ 민주 vs 非민주 경쟁구도 속 6파전 각축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6파전 구도로 확정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에 전략공천 후보를 내세우며 필승을 다지고 있으며, ‘일당독점’ 타파를 외치는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도 일제히 출마, 민주당 대 비민주당 구도가 만들어졌다. ▶관련기사 8면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임문영 후보,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 진보당 전주연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무소속 구분기 후보가 출마한다.

민주 임문영 전략공천...AI 산업 대전환 비전 제시  
국힘·혁신·진보·기본소득·무소속 “일당독점 타파”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로 공식이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특히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첫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임문영 후보는 통합특별시장 후보 입법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부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

원회 상근 부위원장, 민주당 디지털특별 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으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AI와 에너지, 미래차와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광주의 산업 대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광주 광산울을 광주의 미래산업 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나갈 구상도 내놨다.

민주당은 전략공천한 임문영 후보를 앞세워 통합특별시장 후보 입법과 AI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부각하고 있다. 임 후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과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내세워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국회정책연구위원회와 TBN 광주교통방송 본부장 경력을 바탕으로 민주당 독점 구조 견제와 실용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광주 발전을 위한 3대 공약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관광산업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2면으로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오늘부터 공식선거전...13일 간 열전 돌입

초대 통합시장·교육감·광산을 보선 등 441명 선출

6·3 지방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1일 공식선거운동 개시와 함께 13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40년만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치러지는 첫 역사적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거대여당 텃밭에서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전남 사·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전남에선 통합특별시장 1명과 통합교육감 1명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91명, 기초의원 320명과 광산을 국회의원 1명 등 모두 441명의 일꾼이 탄생할 예정이다.

후보등록 결과, 지방선거는 총 775명이 출사표를 던져 1.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정당별로는 민주당 446명, 조국혁신당 83명, 진보당 67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8명, 기본소득당 6명, 무소속 143명 등이다.

첫 통합시장 선거는 5명, 통합교육감 선거는 4명이 경쟁대에 올랐다. 기초단체장은 광주가 2대 1, 전남이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산을 보선은 민주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까지 총 6명이 출격했다.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어깨띠와 표창, 유세차를 활용해 거리를 누비게 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OK! 지금  
전남시대

### 미래 100년을 이끌 SOC사업 국가계획 수립의 해

#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

## 도로, 철도 등 핵심사업 국가계획 반영 추진 37건, 91.9조

<p>호남·경전선 연결선,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등</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63.2</div> <p>조원</p> <div style="background-color: #e91e63; color: white; padding: 5px; width: 50px; margin: 0 auto;">10건</div>	<p>영암~광주, 고흥~광주,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26.0</div> <p>조원</p>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width: 50px; margin: 0 auto;">8건</div>	<p>완도 약산~금일(국도 27호선) 여수 돌산 신복~우두(국도 17호선) 등</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 10px 0;">2.7</div> <p>조원</p> <div style="background-color: #ff9800; color: white; padding: 5px; width: 50px; margin: 0 auto;">19건</div>
--	--	--